

일본, 합성수지 코스트 절감 박차

수입관세 인하 대응 kg당 10엔 목표 ... 중동제품 수입영향 막대

일본에서 폴리올레핀의 수입관세 인하가 현실과제로 부상하자 2000년부터 kg당 10엔의 코스트 절감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인하되는 관세가 약 10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제시세(동남아)와 실질적인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영향, 그리고 소비자들이 일본산에 인정하고 있는 가격 프리미엄의 해소, 일본 국내가격이 수입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수렴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당시 PE의 아시아 시세는 톤당 500-6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는 한편, 중동이나 아시아, 중국에서 대형 플랜트의 신증설 프로젝트가 잇따르면서 아시아 시세는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저렴한 에탄 원료를 배경으로 한 중동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커 수입제품 유입 위기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화학저널 2004/08/30>